

## Contents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세계 교통 및 물류 분야별 1년 사이 EV/EBITDA 변화



###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뉴욕-뉴저지항 APM터미널, 운송 예약 시스템 구축 예정
2. 하파그로이드, 원격 리퍼 공급망 모니터링 기능 선보여
3. 중국 주요 항만, 구정 연휴기간 화물 입출항료 감면키로
4. 앤트워프항, 5G 통신망 구축 위한 프록시무스와 MOU 체결

### 명사 스피치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한)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은 상실했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의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과거 투자, 수출 주도의 성장전략이 내수소비 위주로 바뀜에 따라 경제성장을 이상으로 소비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돈현 관세법인 조양 대표  
(2020. 1. 15. /물류신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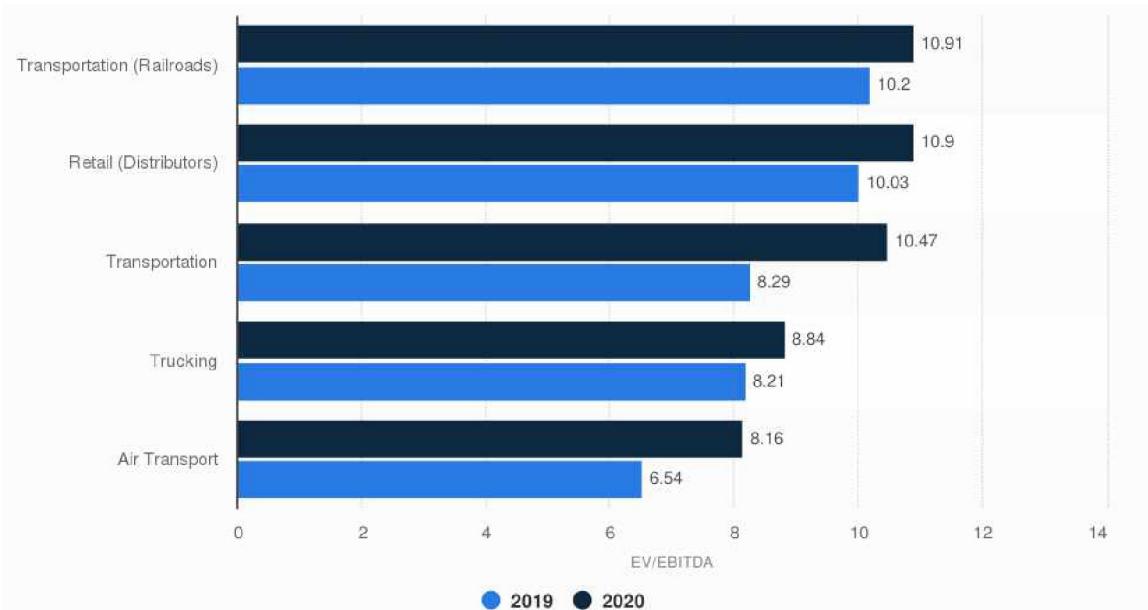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세계 교통 및 물류 분야별 1년 사이 EV/EBITDA 변화

세계 육·공 운송 및 물류 분야 2019년과 2020년 EV/EBITDA 변화 비교

(단위 : 배)

자료 : <https://statista.com>

- 전 세계의 교통 및 물류 부문의 2020년 평균 EV/EBITDA 멀티플은 약 9.9 배
  - EV/EBITDA는 기업의 시장가치(Enterprise Value; EV)를 세전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으로 나눈 값임
  - 조사기간은 2019년 1월과 2020년 1월이며, 2019년 39,174개(운송 및 물류 기업: 1,662개), 2020년 39,677개(운송 및 물류 기업: 1,666개) 기업이 응답함
- 철도 운송 산업은 2020년 기준 10.9 배로 가장 높은 평가 배수를 보였으며, 항공 운송 산업이 8.16 배로 가장 낮은 평가 배수를 보임
  - EV/EBITDA 배수가 낮을수록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영업이익에 비해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해외 및 업종 간의 수익력 비교에 사용됨
  - 전년도 대비 가치 평가 배수 포인트가 상승함에 따라, 5가지 분야 모두 잠재력과 함께 가치평가도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참고자료 : <https://statista.com>, “Average EV/EBITDA multiples in the transportation & logistics sector worldwide in 2019 and 2020, by industry” (검색일: 2020.2.10.)



## 물류정책·산업동향

### 뉴욕-뉴저지항 APM터미널, 운송 예약 시스템 구축 예정

- APM터미널인 ‘포트 엘리자베스’에 2월 말 운송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운송 예약 시스템은 ’16년 12월 항만 내의 ‘GCT Bayonne’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LA항을 포함한 다른 APM터미널에서 사용되는 ‘TERMPPoint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임
  - 아직 정확한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뉴어크 터미널’에도 운송 예약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임
  - 시스템 도입에 따른 트럭 운송업자들을 위한 교육이 1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시스템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 완료 이후에 공개될 예정임
- 2019년, 뉴욕-뉴저지항은 롱비치항을 제치고 LA항에 이은 미국 2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으며, APM터미널은 2억 달러 규모의 터미널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뉴욕-뉴저지항은 선박 대형화와 물동량 증가로 운송 예약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어 왔으며, APM터미널의 운송 예약 시스템은 터미널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APM터미널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선박과 육상 크레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게이트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터미널의 하역능력을 강화하여 3척의 메가 컨테이너선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 운송 예약 시스템의 효과는 입증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송업자들은 도입을 우려하고 있음
  - 항만 내 최대 화물연대인 ‘바이스테이트(Association of Bi-State Motor Carriers)’를 비롯한 항만 트럭 운송업자들은 교통 혼잡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약속시간 내 화물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을 우려하여 운송 예약 시스템 도입에 반대한 바 있음
  - 운송 예약 시스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많은 트럭 운송업자들은 도입에 찬성했으나, 아직도 일부 트럭 운송업자들은 항만 내 2개의 예약 시스템이 업무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항만 내 6개 터미널 운영사는 뉴욕-뉴저지항의 물류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로 기존 중앙 집중식 정보 포털의 개선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임
  - 2015년, 항만 내 컨테이너의 가시성(visibility) 제공을 위해 중앙 집중식 정보 포털인 TIPS(Terminal Information Portal System)가 출시됨
  - 화주와 트럭 운송업자는 TIPS 포털에서 직접 정보를 찾는 것 대신 추가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된 정보를 자체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게 됨
  - 트럭 운송업자들은 이미 ‘GCT Bayonne’에서 TIPS 시스템을 이용해오고 있으며, 터미널 측은 운송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트럭이 터미널을 진입한 후 나가는 ‘턴 타임’ 시간을 45% 단축(평균 1시간 미만) 했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 [www.JOC.com/](http://www.JOC.com/), 2020.2.11.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 하파그로이드, 원격 리퍼 공급망 모니터링 기능 선보여

- 하파그로이드는 자사 시스템에 ‘Hapag-Lloyd LIVE’라는 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리퍼 컨테이너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함
  - Hapag-Lloyd LIVE는 고객사에 리퍼 컨테이너의 상태,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콜드체인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며, 처음에는 선택된 고객 그룹에만 제공될 예정이나 점차적으로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부착된 약 10만 개의 리퍼 컨테이너가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함
  - 하파그로이드의 Juan Carlos Duk 글로벌사업개발 상무이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된 Hapag-Lloyd Strategy 2023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질 1위가 되는 것은 곧 고객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이며 경쟁업체와의 강력한 차별화 요소라고 함
  - Hapag-Lloyd LIVE는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성과 모든 참여자들의 책임을 크게 높일 것이며, 여과 또는 훼손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함
- Hapag-Lloyd LIVE는 냉장 화물 디지털화 촉진의 단계이며, 동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고객 맞춤형 온도제어, 화물 위치확인, 그리고 데이터 활용 등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받음
  - 이러한 기능은 2019년 12월 출시된 고객용 대쉬보드인 ‘Hapag-Lloyd Navigator’를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Hapag-Lloyd LIVE를 통해 고객들은 관련된 선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됨
  - Hapag-Lloyd Navigator는 선적 관련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대쉬보드로 다양한 화물 및 예약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임

**Hapag-Lloyd Navigator**

The screenshot shows the Hapag-Lloyd Navigator software interface. At the top, it displays a list of shipments with various tracking numbers and status information. Below this is a section for 'Shipment Details' showing a map with stops at GBLW, GB509, NYK RUMLIA, and ILSAIX, along with arrival and departure dates. To the right of the map are sections for 'Additional Products' (Cargo Insurance, Additional Freightline, Shipping Guarantee), each with a 'Coming soon' note. On the far right, there's a sidebar titled 'To Do' with several tasks listed, such as 'Rate Expiring 04.12.2019' and 'Submit SI Documents'. At the bottom right, there's a small image of a person working on a laptop with the text 'Click Quotes. Simply faster.' and the Hapag-Lloyd logo.

사진 : Hapag-Lloyd, <https://www.hapag-lloyd.com/en/landingpage/hapag-lloyd-navigator.html> (검색일: 2020.2.11.)

■ 참고자료 : Hapag-Lloyd, <https://www.hapag-lloyd.com/en/landingpage/hapag-lloyd-navigator.html> (검색일: 2020.2.11.)  
 Port Technology, Hapag-Lloyd launches remote reefer supply chain monitoring tool, (검색일: 2020.02.06.)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 중국 주요 항만, 구정 연휴기간 화물 입출항료 감면키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주요 성시의 구정 연휴기간 연장으로 가중되는 고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중국의 주요 항만 기업들이 비용 감면조치를 발표함
  - 기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구정 연휴는 2020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였으나, 광동성,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 장쑤성, 산둥성 및 하베이성을 비롯한 주요 수출입 지역을 포함해 최소 19개 성·시가 구정 연휴를 2월 9일로 연장함
- 2020년 2월 3일 현재 상하이, 산둥, 텐진, 라오닝, 허베이, 장쑤, 광동, 안후이, 광시, 충칭, 샤먼, 푸저우, 우한 등 지역 약 20 여개 항만 기업<sup>1)</sup>이 비용 감면조치를 시행하기로 함
  - 항만별로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 항만은 구정 연휴기간 입항한 풀 컨테이너화물(주로 일반화물)에 대해 화물 입출항료(2020년 1월 24일~2월 9일)를 면제해주기로 함
  - 산둥성항만그룹의 경우 화물 입출항료 면제 외에도 운송 등 문제로 적시에 수송되지 못하는 대량 벌크화물 및 유류품에 대해 무료 장치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해주기로 함
  - 베이부완항그룹은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무료 장치기간을 2020년 2월 20일까지, 허베이항만그룹은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무료 장치기간을 2020년 2월 2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함
  - 텐진항의 경우에는 수입 구조 물자에 대해서만 화물 입출항료를 면제해주기로 함
- 한편 일부 정기선사도 중국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비용 감면 조치를 발표함
  - COSCO Shipping은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2020년 1월 24일~2월 9일 발생하는 체화료(Demurrage)를 감면해주기로 함
  - Maersk는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수입 컨테이너에 대해 체화료 및 지체료(Detention)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Hapag-Lloyd는 1월 24일~2월 9일까지 수입 컨테이너에 대해 무료 장치기간을 제공하기로 함<sup>2)</sup>
  - PIL은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발생하는 체화료를 면제해주기로 함

■ 참고자료 : mp.weixin.qq.com, 2020.2.3. / www.ce.cn, 2020.2.3.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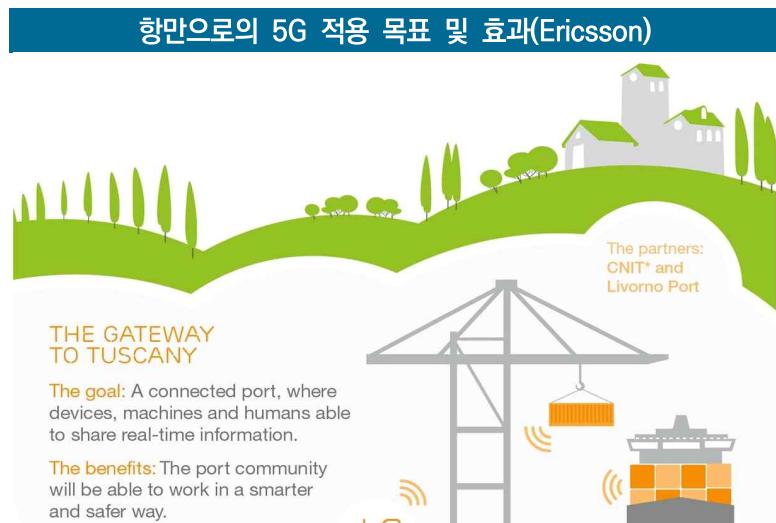
1) 광저우항주식유한회사, SIPG, 낭보-저우산항주식유한회사, 장쑤성항만그룹, 산둥성항만그룹, 텐진항그룹, 푸저우항무그룹, 주하이항그룹, 우한항무국제컨테이너유한회사, 샤먼컨테이너터미널그룹, 충칭항무물류그룹, 베이부완항그룹, 진강항국제컨테이너터미널회사, 허베이항만그룹, 조상국항만그룹, 라오닝항그룹, 엔텐국제컨테이너터미널유한회사, 등관항무그룹 등이 참여.

2) Maersk와 Hapag-Lloyd 모두 경과보관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 안트워프항, 5G 통신망 구축 위한 프록시무스와 MOU 체결

- 벨기에 안트워프항은 프록시무스와 MOU를 체결해 5G 사설 통신망 구축을 계획함
  - 앤트워프(Antwerp)항은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되며, 5G 통신망 기술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임
  - 5G는 광대역 및 높은 통신속도가 장점인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 국내의 경우 2018년부터 채용됨
  - 궁극적으로, 해당 사설 통신망을 벨기에의 공용 통신망에 연계할 계획임



자료 : <https://www.ericsson.com/en/cases/2016/5gtuscany/digitalizing-port-operations-with-5g> (검색일: 2020.02.11)

- 항만 뿐 아니라 5G 통신망의 잠재적 적용 영역을 파악하고 평가할 예정임
  - 예인선 간 통신망을 구축해 더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장비 간 뿐만 아니라, 장비와 작업자 간 통신망 구축으로 작업 할당, 계획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고, 안전성도 개선 가능함
  - 무선 감시 카메라나 드론을 활용한 보안 및 검사 분야도 잠재적 적용 영역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증강·가상현실 기술과 접목해 교육 및 작업 보조 등에 적용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portstrategy.com/news101/technology/5g-port-network-to-drive-innovation> (검색일: 2020.02.11)  
[https://ko.wikipedia.org/wiki/5세대\\_이동\\_통신](https://ko.wikipedia.org/wiki/5세대_이동_통신) (검색일: 2020.02.11)